

도,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시행자 모집

고창 인근 해역 약 55km² 대상,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행자 공모... 향후 25년간 발전소 건설·운영 권한 가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고창 인근 해역 약 55km²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행자 공모에 모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해당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자는 해당 해역에서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전체 사업기간은 총 25년으로, 인허가 및 건설(2025년 10월~2030년 9월) 5년, 상업운영(2030년 10월~2050년 9월)

20년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계획'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군 전과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을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공모 참가자를 위해 풍황 예측 데이터, 전력계통 연계자료, 사업성 분석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정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인프라 구축 전략 △기타 사업제안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

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과의 협업은 물론, 향후 부안해역 추가 사업자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자치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063-280-4728)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가동

전국 최초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 개최... 27개 기관 협업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에서 '2025년 제1차 전북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도 경찰청, 도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전담의료기관, 14개 시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 총 2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가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관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이후 구축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방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아동학대 현황 및 주요 사업 보고 △유관기관별 협업 사례 공유 △전북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및 제언 △실의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수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단체 주관으로 보장원과 공동 회의를 여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 체험관 등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2024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광역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못지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전북형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읍서 '전북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성료 | 도내 14개 시군 청원경찰 800여명 참석... 상호 친목·화합 다져

전북 14개 시군의 청원경찰 800여명이 정읍에 모여 화합과 연대의 시간을 나눴다.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가 17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와 정읍시청원경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청원경찰협의회가 주관했다. 행사장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정현을 익산시장,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의장, 박상훈 정읍경찰서장,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읍시 농악단의 흥겨운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비롯해 한마음 경기, 시군별 장기자랑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청원경찰 간의 우애와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각각 기탁해 감동을 더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가 17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은 청원경찰의 공직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도

와 14개 시군 청원경찰의 자긍심을 높이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협의체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다음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농촌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자, 도내 13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전문가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

군이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차 지원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협의체의 본격 운영을 위해 1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협의체 소속 전문가,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 농촌공간재구조화 정책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협의체의 운영계획과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축산농장 방역, 정확한 소독법 준수부터'

농진청, 가축전염병 예방위한 소독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도 담그기(침치),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등(렘

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출 부위까지도 소독할 수 있고,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아 자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약제 소독 방식과 병행할 경우,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도, 전국 상위권 복지시설 배출... 우수 3곳·개선시설 1곳

우수 - 전주평화사회복지관·전주금암노인복지관·전주꽃밭정리노인복지관, 개선-정읍사회복지관... 총 2450만원 포상금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도내 전주평화사회복지관, 전주금암노인복지관, 전주꽃밭정리노인복지관이 '우수시설', 정읍사회복지관은 '개선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전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학계·공무원 등 전문가 참여) △의의신청 및 확인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이다. 총점에 따라 5등급(A~F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나뉘며, 동일 유형 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관 287곳, 노인복지관 240곳이 평가를 받았으며,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 사회복지관 16개소, 노인복지관 13개소와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 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주평화사회복지관(우수시설, 2회 연속 A등급, 700만원) △전주금암노인복지관(우수시설, 2회 연속 A등급, 700만원) △전주꽃밭정리노인복지관(우수시설, A등급,

700만원) △정읍사회복지관(개선시설, A등급, 350만원) 총 2,450만 원의 포상금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도내 복지시설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만큼,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전남대 의공학부·헬스케어의공학연구소와 업무협약 맺어

혁신형 바이오·의료기술 공동 연구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개발 '기대'

전북대학교병원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전남대학교 의공학부 및 헬스케어의공학연구소와 함께 혁신형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협력 연구를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초광역 단위의 지역 간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전북대병원이 연구 중인 중추성 통증의 진단·치료 기술과 전남대가 보유한 비침습적 뇌 활성도 측정기술을 상호 공유하며, 향후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워크숍을 통해 난치성 질환인 중추성 통증에 대한 혁신적인 의료기술 개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의미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병원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전남대학교 의공학부 및 헬스케어의공학연구소와 함께 혁신형 바이오·의료기술 분야의 협력 연구를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국가과제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짧은 임상의를 세계 최고 수준의 의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며, 혁신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는 전국에

총 6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호남·제주 권역에서는 전북대병원이 유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명환 센터장은 "전북대병원 혁신형미래의료연구센터와 전남대 의공학부, 헬스케어의공학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 미래의료 분야 핵심 인력 간 연구 교류가 본격화될 것이다"며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의료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와 기술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선진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미래의료를 선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